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05-3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4 성소수자인식조사:
동성결혼 법적 허용,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 인식

2024. 11. 13.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동성결혼 법제화와 동성 커플 입양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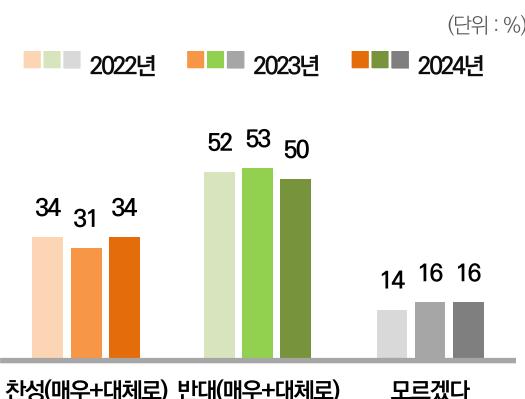
동성결혼 법제화 반대 50%, 2021년 이후 일관되게 법제화 반대 의견 50%대 유지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허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 맞서는 상황 지속

동일한 성별을 가진 사람 간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여전히 우세하다. 올해 조사에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34%, 반대하는 사람은 50%로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모르겠다 16%). 2021년 본 조사를 진행한 이후, 4년 연속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허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올해 조사에서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은 35%, 허용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39%로 오차 범위 내 차이이다. 모르겠다는 의견도 25%로 적지 않다. 2021년 이후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허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어느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고르게 나뉜다.

남성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동성 결혼 법적 인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반면 30대 이하 여성은 절반 이상이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해, 30대 이하에서는 남녀간 인식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30대 이하 여성은 또한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과반이다. 진보층, 지인 중 성소수자가 있는 사람도 동성결혼의 법적 인정과 동성 커플 자녀 입양 허용에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반면, 보수층과 개신교 신자는 절반 이상이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반대하고,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 34%, 반대 50% 법제화 반대 입장 일관되게 50%대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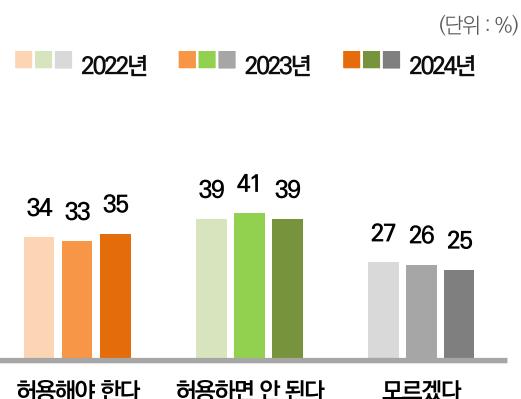


질문: 동성결혼(동일한 성별을 가진 사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7. 1. ~ 4. // 2023. 6. 9. ~ 12. // 2024. 6. 27 ~ 7. 1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허용 35%, 허용 불가 39% 찬반 의견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지속



질문: 동성 커플이 자녀를 입양해 키우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7. 1. ~ 4. // 2023. 6. 9. ~ 12. // 2024. 6. 27 ~ 7. 1

30대 이하 여성, 진보층, 지인 중 성소수자 있는 사람은 동성결혼 법적 허용과 동성 커플 자녀 입양 모두 긍정적
남성, 보수층, 개신교 신자는 동성결혼 법적 허용 반대, 동성 커플 자녀 입양도 허용 불가 인식 우세

(단위 : %)

	사례수 (명)	찬성 (매우+대체로)	동성결혼 법적 허용 반대 (매우+대체로)		모르겠다	동성 커플 자녀 입양 허용해야 한다 허용하면 안 된다 모르겠다		
			반대	허용		허용해야 한다	허용하면 안 된다	모르겠다
전체	(1,000)	34	50	16		35	39	25
성별								
남자	(494)	26	61	13		29	48	23
여자	(506)	42	40	18		41	31	28
연령								
18-29세	(159)	45	41	14		42	31	27
30대	(149)	46	39	15		44	35	22
40대	(177)	32	47	20		29	43	28
50대	(196)	31	51	18		31	42	27
60대	(173)	25	60	15		30	41	29
70세 이상	(146)	27	64	10		37	45	18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82)	22	62	16		28	42	29
여자_18-29세	(77)	70	18	12		57	18	24
남자_30대	(77)	35	51	15		37	40	23
여자_30대	(72)	57	27	16		51	29	20
남자_40대	(90)	23	61	15		22	56	22
여자_40대	(87)	41	33	25		36	30	35
남자_50대	(99)	28	60	12		29	45	26
여자_50대	(97)	35	42	23		33	38	28
여자_60대	(85)	23	64	12		34	45	21
남자_60대	(88)	27	56	17		27	36	37
남자_70세 이상	(61)	22	73	5		27	61	13
여자_70세 이상	(85)	30	57	13		44	34	22
이념성향								
진보층	(304)	48	38	13		48	28	25
중도층	(325)	32	49	19		32	39	29
보수층	(333)	23	67	10		27	53	20
종교								
개신교	(183)	20	71	9		22	60	18
천주교	(107)	39	48	12		35	37	28
불교	(163)	29	53	18		35	35	30
종교 없음	(520)	39	43	18		40	34	26
지인 중 성소수자 유무								
있음	(122)	69	23	7		61	26	14
없음/모름	(878)	29	54	17		32	41	27

질문: 동성결혼(동일한 성별을 가진 사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동성 커플이 자녀를 입양해 키우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6. 27 ~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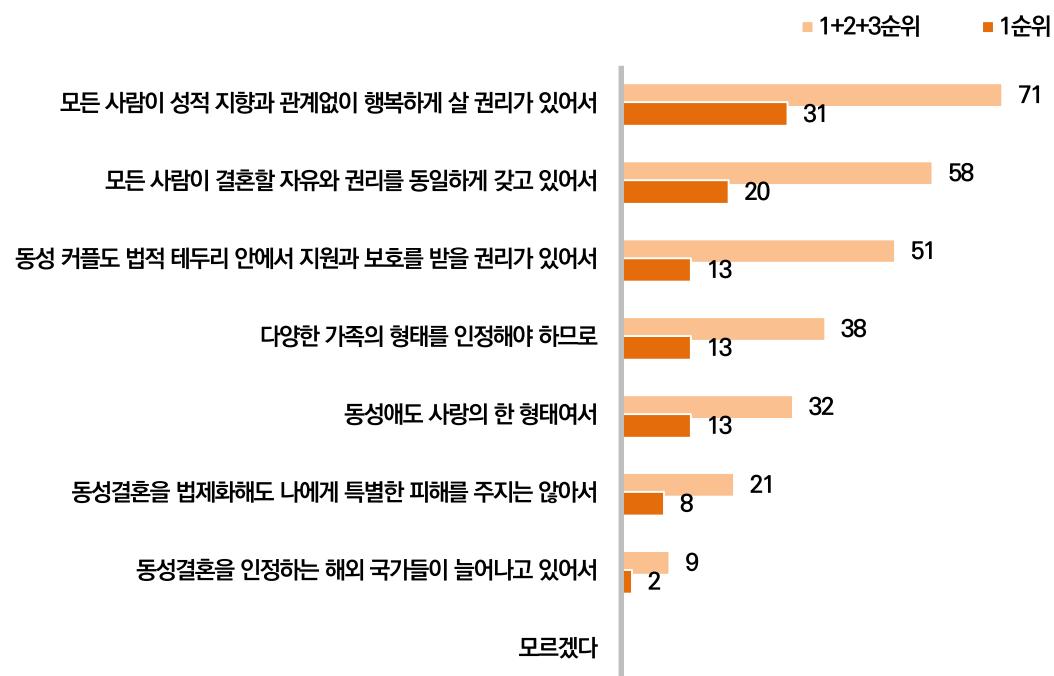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hrcopinion.co.kr)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 주된 이유, 보편적인 행복권 인정(71%)과 모두에게 동등한 결혼의 자유 보장(58%)

동성결혼 법적 인정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보편적인 행복권 인정(모든 사람이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서, 1+2+3순위 71%)과 동등한 결혼의 자유 보장(모든 사람이 결혼할 자유와 권리를 동일하게 갖고 있어서, 58%)이다. '동성 커플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서(51%)'까지 포함하면, 동성 커플에게 기본권과 보편적 인권을 허용해 줘야 한다는 것이 동성결혼 법적 인정에 찬성하는 주된 근거이다. 이는 [지난해 조사](#)와 비슷한 결과이다.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 주된 이유, 보편적인 행복권 인정(71%)과 모두에게 동등한 결혼의 자유 보장(58%)

(단위 : %)



질문: 동성결혼(동일한 성별을 가진 사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고: 복수응답(최대 3순위까지 선택)

응답자 수: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찬성하는 응답자 34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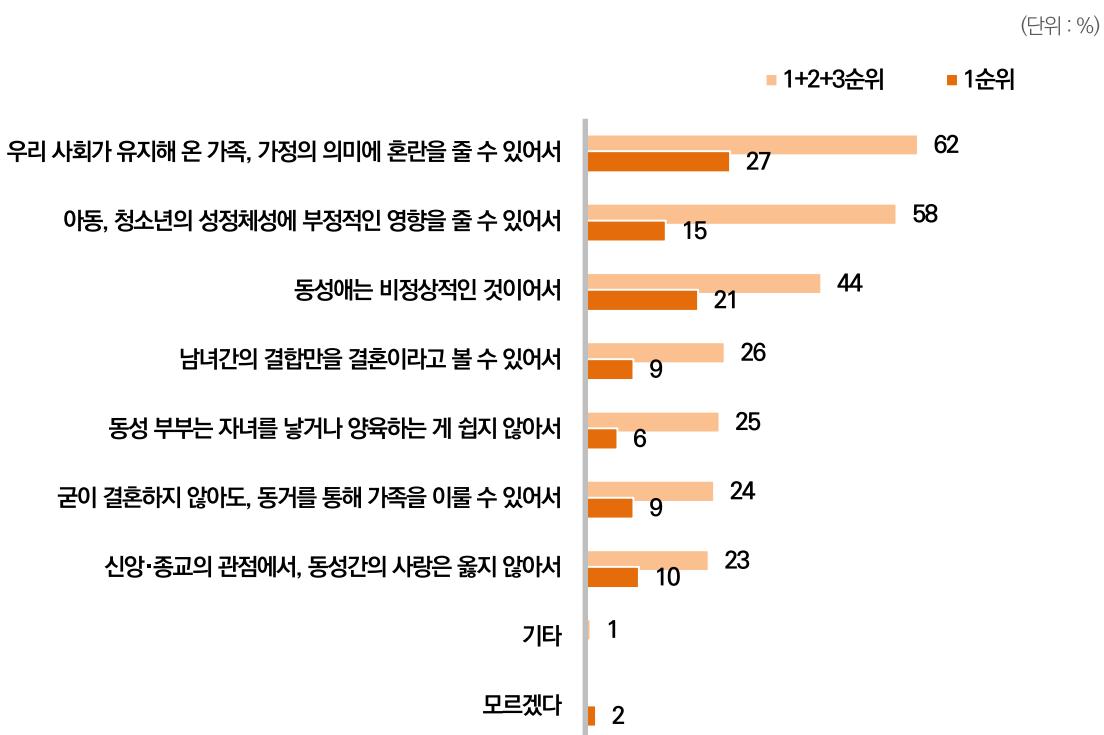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4. 6. 27 ~ 7.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hrcopinion.co.kr)

동성결혼 법제화 반대 주된 이유, 가족·가정의 의미 혼란(62%)과 아동·청소년 성정체성에 부정적 영향(58%)

반면, 동성결혼 법적 인정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우리 사회가 유지해 온 가족·가정의 의미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 1+2+3순위 62%)과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아동, 청소년의 성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58%)이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사람도 44%이다. 동성결혼 법적 인정에 찬성하는 사람이 개인의 권리 및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 및 가치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염려한다. 이 또한 [지난해 조사](#)와 비슷한 결과이다.

동성결혼 법제화 반대 주된 이유, 가족·가정의 의미 혼란(62%)과 아동·청소년 성정체성에 부정적 영향(58%)



질문: 동성결혼(동일한 성별을 가진 사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고: 복수응답(최대 3순위까지 선택)

응답자 수: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반대하는 응답자 504명

조사기간: 2024. 6. 27 ~ 7. 1

2

초·중·고등학교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 필요성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 필요하다, 초등학교 58%, 중·고등학교 72% 공교육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 필요하다는 인식은 꾸준히 과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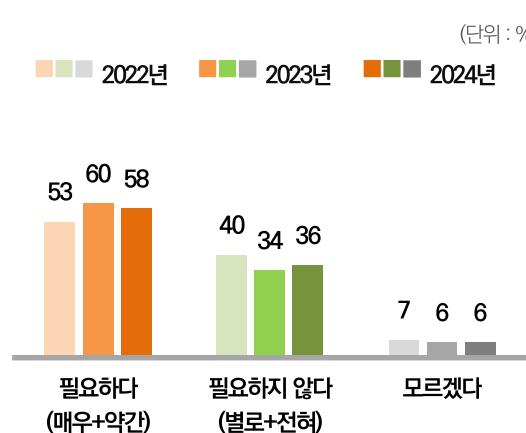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을 제시하고, 각급 학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초등학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58%로 지난해(60%)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고등학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지난해와 동일한 72%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유지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세대와 성향과 관계 없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은 다소간의 의견 차이가 확인된다. 30대 이하 여성은 4명 중 3명 정도가 초등학교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진보층(67%), 지인 중 성소수자가 있는 사람(72%)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남녀 모두 절반(48%)에 이른다. 보수층(46%), 개신교(49%) 및 천주교(48%) 신자도 절반 가량은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사람 또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51%)과 불필요하다는 인식(46%) 간 차이가 없다.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 필요하다, 초등학교 58%, 중·고등학교 72% 공교육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 필요하다는 인식은 꾸준히 과반 유지

초등학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이...



중·고등학교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교육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 형성

반면 초등학교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70세 이상, 보수층 등에서 불필요 인식 절반
미성년 자녀 있는 사람도 찬반 의견 엇갈려

(단위: %)

사례수 (명)	초등학교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교육 필요 (매우+약간)			모르겠다	중·고등학교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교육 필요 (매우+약간)		
	불필요 (전혀+별로)	모르겠다	불필요 (전혀+별로)		불필요 (전혀+별로)	모르겠다	모르겠다
전체	(1,000)	58	36	6	72	23	5
성별							
남자	(494)	57	37	6	69	26	5
여자	(506)	60	35	5	75	20	5
연령							
18~29세	(159)	64	25	11	69	21	10
30대	(149)	64	33	3	75	22	3
40대	(177)	58	39	3	80	17	3
50대	(196)	62	34	4	76	22	2
60대	(173)	55	39	7	70	24	6
70세 이상	(146)	47	48	5	61	34	5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82)	53	30	17	59	26	15
여자_18~29세	(77)	76	20	5	80	15	5
남자_30대	(77)	56	41	3	69	28	3
여자_30대	(72)	72	24	4	81	15	4
남자_40대	(90)	58	41	1	78	21	1
여자_40대	(87)	58	37	5	82	13	5
남자_50대	(99)	63	33	5	74	23	3
여자_50대	(97)	61	35	4	77	21	2
여자_60대	(85)	61	35	4	74	23	3
남자_60대	(88)	49	42	9	67	25	8
남자_70세 이상	(61)	47	48	5	57	38	5
여자_70세 이상	(85)	47	48	6	63	31	6
미성년 자녀 유무							
있음	(203)	51	46	3	72	25	3
없음	(797)	60	34	6	72	22	5
이념성향							
진보층	(304)	67	30	3	82	16	3
중도층	(325)	60	33	7	70	24	6
보수층	(333)	49	46	5	66	29	4
종교							
개신교	(183)	46	49	5	62	34	4
천주교	(107)	49	48	4	67	30	4
불교	(163)	60	34	6	74	22	4
종교 없음	(520)	65	29	6	77	18	5
지인 중 성소수자 유무							
있음	(122)	72	27	1	81	18	1
없음/모름	(878)	56	37	6	71	24	5

질문: 초·중·고등학교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6. 27 ~ 7. 1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5월 기준 전국 93만여 명)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1,0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요청 42,058명, 조사참여 1,433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4%, 참여대비 69.8%)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4년 6월 27일 ~ 7월 1일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 Research

